

광복후 대한병리학회의 학술활동(1945~1957)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지 제 근

Pathology in Korea during the Period 1945~1957

Je G. Chi, M.D.

Department of Pat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The pathology in Korea was introduced by Japanese and American missionaries in early 1920. Since that time, pathology teaching, service and research in Korea had been under strong influence of Japan. There was no independent disciplines of Korean Pathology until the time of Liberation from Japan in 1945.

Pathology activity during early period of Korean Pathology, 1945 to 1957, was reviewed in this paper, based on the literature available.

The first half of this period(1945 to Korean War) was a transition period from the Japanese-German Pathology to Korean Pathology. Only 8 papers related to pathology were published during this time in Korean literature. However, papers that were orally presented at annual meetings were 12 in 1947, 23 in 1948 and 13 in 1949, respectively.

The Korean Society of Pathologists was founded in 1947. And the annual meeting was started from 1947 under the auspice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The annual meeting could not be held in the year of 1950, when the Korean war started. Virtually no public academic activity was present during 1950 to 1952.

The second half of this period(Korean war to 1957) represented reconstruction of Pathology. In fact it was a restart of the Korean Pathology in Korea. During this period less than 10 papers were published in the Korean medical journals. Oral presentation titles at the annual meetings were 6 in 1953, 18 in 1954, 14 in 1955, 15 in 1956 and 31 in 1957, respectively.

In summary, the period of the first 12 years since the liberation from Japan, 1945 to 1957, appears to be the dark age of Korean Pathology. No significant academic activity could be found during this period. The slow start of Korean Pathology during the first half of this period was further delayed by the Korean War. Despite all these facts, spirit and effort of early Korean pathologists should be highly appreciated. It seems that the Korean Pathology actually restarted after the Korean war under the influence of American Pathology. It seems only after 1958 that the Korean Pathology took a firm position for promotion. (*Korean J Pathol* 1995; 29: 352-360)

Key Words: Korea, Pathology, History

접 수:1994년 7월 20일, 게재승인:1995년 3월 18일
주 소: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번지, 우편번호 110-744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지제근

머 리 말

광복과 더불어 창립된 대한병리학회가 독자적으로 학술대회를 가지게 된 1958년 즉 제10차 학술대회까지 학회의 학술활동은 대한의학협회 종합학술대회에 포함되어 연세발표를 하는 정도였고 그 발표내용도 당시 마땅히 게재할 만한 학술잡지도 없었기 때문인지 그 기록이 여러가지로 미비하다. 사실 이 시기는 광복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밀어닥친 6.25 한국전쟁 때문에 학문에 정진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처지였다.

이 시기에 있었던 병리학의 활동에 대하여는 별로 알려진 바 없다. 대한병리학회지 창간호에도 1958년부터의 연제와 초록이 실려 있을뿐 1945년부터 1957년까지의 기록은 빠져있다¹⁻⁵.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병리학과 관련을 가졌던 학자들이 기관별로 병리학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자취가 부분적으로 기록에 남아 있다. 따라서 저자는 이 시기에 발행된 문헌을 토대로 광복후 12년간의 우리나라 병리학 연구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시기는 1945년부터 1957년 사이로써,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한국전쟁을 치렀으며 이 전쟁은 우리나라 병리학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필자는 이 시기를 광복후 한국전쟁까지(1945~1950)와 전쟁후 어느 정도 학문의 체계가 잡혔던 1958년까지의 두 마디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1. 광복후 6.25전쟁까지(1945~1950)의 학술활동

1945년 즉 광복되던 해에는 병리학에 관한 문헌을 찾아 보기가 힘들다. 1945년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꾸준히 발간되어 朝鮮醫學會雜誌나 京城醫學專門學校紀要등 정기적으로 간행되던 의학관계 전문 학술지가 간행을 멈추었기 때문에 외국으로 내보낸 논문 외에는 국내에서 출간된 것이 없다. 광복 이듬해인 1946년 말경에 朝鮮醫學新報라는 종합의학간행물이 창간되었으나 여기에는 병리학관계 논문은 없으며 그나마 몇호(3호?)내지 못하고 자취를 감추었다¹.

한편 1946년 12월 朝鮮醫報라는 의학학술지가 처음 발간되었는데¹ 이것이 아마도 한국의 의학전문학술지의 효시라고 판단된다. 여기에는 尹日善의 「국제암회의」 참석기가 게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시 대한병리학회 회장이던 尹日善이 국제사회에 우리나라가 독립하였음을 알리고 빨리 국제적 교류를 가지기 위한 시도였다고 여겨진다⁶. 1947년 朝鮮醫學新報 2권에 李濟九의 「Cholera」에 대한 종설이 처음 게

재되었다⁷.

한편 1947년 5월 10, 11일에는 서울의대 대강당에서 제1회 대한의학협회종합학술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발표된 총 74연제 중 13연제가 병리학과 관련된 것이었다^{5,8}. 물론 이들은 논문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초록으로 혹은 구연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 당시의 학술활동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제1표 참조). 당시는 학교이름도 약자로 世大(세브란스의대), 國大(국립서울의대), 光大(광주의대)등이었는데 世大에서는 具國會의 「비타민 B가 혈청과민증에 미치는 영향」과 金東式의 「발암성 물질인 트라키논이 간장, 갑상선 및 위배 미치는 영향」등이 발표되었다. 한편 당시 광주의대로 부임한 金永濟와 安富浩는 그곳에서 혈액응고에 관련된 연구를 발표하였다. 서울대에서는 朱星淳등이 「脾性貧血」, 朴雨均이 「조직구의 채집방법」, 鄭昌洙의 「melanophoren hormone」, 洪錫宰의 「뇌하수체 적출동물」, 韓鎬燮이 「동물의 체온조절성 물질」 등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인체 병리에 관한것은 서순규등의 「朝鮮人病理解剖屍體의 臟器重量」, 金泰順의 「부검에서의 기형빈도」, 南昌春의 「부검상의 사인분석」 등이 발표된 것으로 보아 서울대에서는 1945년 광복이후 바로 부검을 실시하여 그것을 토대로 이러한 연제를 발표한 것을 알 수 있다. 불행이도 연제만 있을뿐 초록내용을 참조할 수가 없어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또 이 당시의 부검기록도 한국전쟁중 소실되어 지금은 참고할 수 없다.

1948년 朝鮮醫報에 처음으로 한글로 된 우리말 논문이 2편 게재되었다^{10,11}. 그 하나는 전년도(1947년) 제1회 학회에서 발표되었던 韓鎬燮의 「한냉 또는 온열에 폭로한 가토혈액내의 체온조절성 물질에 관한 연구」¹⁰ 이고 또 하나는 南昌春의 「성숙아에까지 발육된 희유한 낭관임신의 1부검예」였다¹¹. 그리고 여기에는 尹日善의 「미국의학의 보고서」라는 글도 있다¹². 한편 1948년 5월 28일, 29일에는 제2차 대한의학협회 종합학술대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발표된 총 140연제중 23연제가 병리학관계 연제였다(제1표). 서울대 제1병리에서는 박우균등이 「脾정맥류의 1부검례와 유핵적혈구의 wasserblau 과립」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제2병리에서는 李濟九등이 「제15회 올림픽 파견 선수의 혈액검사소견」, 朱星淳은 「조선인 혈액상」, 「은빈혈」 등을 발표하였다. 부검이 활발하여짐에 따라 희귀한 증례발표도 있었는데 주성순, 박희달은 「말단비대성 거인증」, 南昌春, 金泰順은 「13세 소녀에 발생한 원발성 간암」, 南昌春, 李聖洙는 「전신에 전위를 일으킨 소위 늑막내피종」등을 발

제 1 회(1947년)

1. '비타민' B이 血清過敏症에 미치는 影響.
具國會(世大)
2. 脾性貧血 發生機序에 關한 再檢討(第一報) 鉛性貧血에 關하여.
朱聖淳, 鄭佐鉉(國大)
3. 各臟器 止血劑의 血液凝固 價値에 關한 實驗的 研究 及 新網內系除外方法에 대하여(第一報)
安富浩, 金永濟(光大)
4. 血液凝固 測定法에 대하여
金鉉五(光大)
5. 各臟器物質의 血液凝固에 對한 生體內實驗(第一報)
朴英集(光大)
6. 寒冷 및 溫熱에 暴露한 家兎血液內的 體溫調節性 物質에 關하여
韓鎬燮(國大)
7. 發癌性 物質인 트라키논이 肝臟, 甲狀腺 及 胃에 미치는 影響
金東式(世大)
8. Melanophoren hormon의 消長機轉에 關한 研究
鄭昌洙(國大)
9. 組織球의 一採集方法에 關하여
朴雨均(國大)
10. 朝鮮人 病理解剖屍體의 主要臟器重量
徐舜圭(國大)
11. 朝鮮人 病理解剖屍體에 있어서의 二三畸形의 出現頻度
金泰順(國大)
12. 剖檢上으로 본 朝鮮人 死因 及 主要疾患
南昌春(國大)

제 2 회(1948년)

1. 第十五回 '올림픽' 派遣選手의 血液檢査成績
李濟九, 朱聖淳, 南昌春, 李聖洙, 朴熙達, 鄭佐鉉, 盧相弼, 宋堯燮(國大 第二病理)
2. 外見上 健康朝鮮人血液像(第一報). 白血球 百分率에 關하여
朱聖淳(國大 第二病理)
3. 脾性貧血 發生機序에 關한 再檢討(第二報). 銀貧血에 關하여
朱聖淳, 鄭佐鉉(國大第二病理)
4. 末端性 肥大性 巨人症(腦下垂體腺腫)의 一剖檢例
朱聖淳, 朴熙達(國大 第二病理)
5. 十三歲 少女에 發生한 原發性肝癌(Hepatom)의 一剖 檢例
南昌春, 金泰順(國大 第二病理)
6. 全身에 轉位를 일으킨 所謂肋膜內皮腫의 一剖 檢例
南昌春, 李聖洙(國大 第二病理)
7. 脾材靜脈瘤의 一剖檢例
高允東, 朴雨均(國大 第一病理)

8. 有核赤血球의 Wasserblau 顆粒에 關한 研究
朴雨均(國大 第一病理)
9. 蟲垂炎의 症狀를 나타낸 迴盲部細網肉腫의 一例
李聖洙(國大 第二病理)
嚴商殷(海岸警備隊 群山基地司令部)
10. 自家血清 注射가 植物神經毒으로 인한 白血球變動에 미치는 影響
鄭昌洙(大邱醫大病理)
11. 沃度加里 혹은 重구름酸 加里를 쓰는 新 peroxydase 反應法
朴斗輻(大邱醫大病理)
12. 本教室에서 剖檢한 原發性 肝臟癌의 統計的觀察
朴斗輻(大邱醫大病理)
13. 網狀赤血球에 關한 研究補遺
鄭炳浩(大邱醫大病理)
14. 白血球의 面積에 關한 研究
閔充基, 李載根(大邱醫大病理)
15. 朝鮮人 赤血球 直徑의 正常性에 關한 研究
李載根, 白光宇(大邱醫大病理)
16. 各臟器止血劑의 血液凝固 價値에 關한 研究(第二報傑)
安富浩, 金永濟(光州醫大病理)
17. 各臟器物質의 血液凝固에 對한 生體內實驗(第二報傑)
朴英集(光州醫大病理)
18. 血栓形成의 實驗的 研究(第一報傑)
安富浩, 金永濟(光州醫大病理)
19. 原生動物의 脂肪과粒에 대하여(附) Sudan 3-hydrosol의 脂肪染色法
安富浩, 申鉉球, 金永濟(光州醫大病理)
20. 血液細胞의 酸化酵素顆粒과 Sudan顆粒의 異同 關하여
申鉉球(光州醫大病理)
21. 血液單核球 組織性單核球 及 網狀內皮細胞의 脂肪態度에 對하여
申鉉球(光州醫大病理)
22. 實驗的 化力性炎症巢內 血球의 脂肪顆粒態度 (第一報傑)
洪承瑋(光州醫大病理)
23. 血沈에 對한 肝의 二相性 調節
鞠福振(光州醫大病理)

제 3 회(1949년)

宿題報告

組織의 過敏性變化에 對한 實驗的 研究

尹日善(國大病理)

1. 腦炎屍의 剖檢所見(豫報)
金烜植, 申珠源, 申基洛, 韓泰姬(梨大病理)(順化病理)
2. 今年流行한 腦炎患者 中樞神經系統의 病理組織學的 所見에 對하여
金東式, 具國會, 金淳應, 張鍾完(世醫大病理)

제 1 표. 계 속

- | | |
|---|---|
| 3. 流行性腦炎에 있어서의 中樞神經系統의 病理組織學的 研究
南昌春(國大病理) | 2. ACTH 副腎과 「allergy」와의 關係에 대한 研究
金孝圭(陸軍中央病理研究所) |
| 4. 1949년에 流行한 腦炎屍의 中樞神經系統 以外臟器의 病理組織學的所見
趙明俊, 柳寅秀, 張源永(國大病理) | 3. 辜丸홀몬이 動物筋肉 「allergie」性 變化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實驗的 研究
裴康禧(서울醫大) |
| 5. Myocyte(筋球)에 關하여
林貞圭(女醫大病理) | 4. 胃의 「알레르기」性 變化에 미치는 辜丸의 影響에 관한 實驗的 研究
張鍊必(國立警察病院) |
| 6. Monocyte造生에 關한 知見補遺
申鉉球(光州醫大病理) | 5. 甲狀腺이 心臟의 「알레르기」性 變化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實驗的 研究
盧永民(서울醫大) |
| 7. 各臟器物質의 血液凝固에 대한 生體內 實驗的 研究(第二報)
朴英集(光州醫大病理) | 6. 副腎皮質 홀몬 cortisone이 筋肉 알레기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實驗的 研究
盧永民(서울醫大) |
| 8. Shock時 Prothrombin 減少 機轉의 實驗的 研究(第一報)
南天祐(光州醫大病理) | 7. 鬱陵雁 原住民의 指紋에 關한 調査와 沿岸 各雁民의 指紋과의 比較的 考察
劉永祐, 崔鎮(治安局鑑識科) |
| 9. 網狀織內皮系에서 産出된 血液凝固 促進物(cholesterin comple.)에 關한 研究
安富浩(光州醫大病理, 小麓雁更生院病理) | 8. 燐 投與 肝臟의 「알레르기」性 變化와 이에 미치는 辜丸의 影響에 관한 實驗的 研究
劉永祐(治安局鑑識科) |
| 10. 진탕血液毒의 生物學的 研究
安富浩(光州醫大病理, 小麓雁更生院病理) | 9. 健康家兎에 있어서의 「알레르기」性에 依한 卵巢 及 甲狀腺의 相關性에 대하여
金永復(國立警察病源) |
| 11. Ferritin代謝에 關한 研究
洪錫宰(大邱醫大病理) | 10. 腦下垂體 埋沒療法에 關한 統計學的 小考
金永復(全南醫大) |
| 12. 「후추」給與에 의한 實驗的 研究 特히 肝臟變化에 대하여(第一報)
宋堯燮(國大病理) | 11. 葡萄糖에 依한 血液凝固 促進機轉에 關하여
邊植燦(國立警察病源) |
| 13. 檀紀4282年度 夏期 서울市 順化病院入院患者의 Welt-men氏 反應에 대하여
朴珠源, 宋泰熙(梨大病理) | 12. Shock時의 血液內 蛋白分割 移動에 대하여
南天祐(全南醫大) |
| 제 5 회(1953년) | |
| 1. Ferritin代謝에 關한 研究
洪錫宰(慶北醫大病理) | 13. 本教室 剖檢屍體의 統計學的 觀察
朴英集(全南醫大) |
| 2. 腎臟 「알러지」性 變化와 上皮小體와의 關係에 關한 實驗的 研究
鄭準柎(서울醫大病理) | 14. 오레오마이신 經口的 大量 投與로 因한 各種臟器의 組織學的 變化에 關한 實驗的 研究
鄭準柎(서울醫大) |
| 3. 비타민 K에 因한 血液凝固 促進機能의 實驗的 研究
邊植燦(全南醫大病理) | 15. 腦腫瘍病理組織의 概要
金永紹(釜山棒海外科病院) |
| 4. 우리教室剖檢材料의 統計的 考察
朴英集(全南醫大病理) | 16. Sequestration lung의 부검례
崔日薰(海軍) |
| 5. Adrenalin 及 Nor-adrenalin이 家兎體溫에 미치는 影響
한석규, 김영식(仁川道立病源) | 17. 腦下垂體 Hormone ACTH가 筋肉 allegie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實驗的 研究
金柄羽(서울醫大) |
| 6. 甲狀腺이 肝臟 「알레르기」性 變化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實驗的 研究
서상면(陸軍) | 18. 副腎 및 卵巢의 「allergie」性 變化에 있어서의 相互關係에 대한 實驗的 研究
金柄羽(서울醫大) |
| 제 6 회(1945년) | |
| 1. 「알레르기」性 變化에 있어서의 脾臟과 副腎의 相關性에 關한 實驗的 研究
朴廷彬(서울醫大) | |

제 1 표. 계 속

제 7 회(1955)

1. 變死者 剖檢의 統計的 考察
金春澤, 柳虎烈, 孔守範(陸軍)
2. 腫瘍의 統計的 考察
金春澤, 孔守範(陸軍)
3. 剖檢材料의 統計學的 觀察(第二報)
朴英集(改正農村衛生研究所)
4. 말비탈系 化合物 急性中毒死의 一部檢例
沈龜福, 崔日薰, 趙昌植(海軍)
5. 甲狀腺의 動物筋肉 알레르기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實驗的 研究
韓東煥(海軍)
6. 胸腺의 動物筋肉 알레르기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實驗的 研究
沈龜福(海軍)
7. 燐 投與家兎 肝臟의 「알레르기」性 變化와 이에 미치는 辜丸의 影響에 關한 實驗的 研究
劉永祐(科學搜查研究所)
8. 「아리지」性 變化에 있어서의 辜丸과 甲狀腺과의 相關性에 關한 實驗的 研究
李俊鎬(陸軍)
9. Shock時의 電氣泳動法에 의한 血漿蛋白分割의 變動
南天祐(全南醫大)
10. Vitamin 注射에 의한 血液凝固促進棋戰에 關하여(第二報)
邊楨燦(全南醫大)
11. 濟州民의 指紋에 關한 研究
劉永祐, 崔鎮(國立科學搜查研究所)
12. Entamoeba histolytica 接種動物에 各種治療藥物이 미치는 影響에 대한 實驗的 病理組織學的 研究
金孝圭, 金春澤, 孔守範, 田世圭(陸軍)
13. 下顎지齒 根端에 發生한 pyopenic granuloma의 一例
崔日薰, 俞炳祉(梨花醫大)
14. 女乳症의 一例
崔日薰, 俞炳祉(梨花醫大)

제 8 회(1956년)

1. 胸腺이 卵巢 「알러-지」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實驗的 研究
黃泰植(延世醫大)
2. 脾臟 「알러-지」와 脂肪變性과의 關係
崔永德(釜山高麗病源)
3. 脂肪變性이 心臟 「알러지」性 變化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實驗的 研究
金東式(延世醫大)
4. 「알러-지」性 變化에 있어서의 肝臟과 甲狀腺과의 相關性에 關한 實驗的 研究
方炫(延世醫大)

5. 網狀內皮組織이 肝臟 「알러-지」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實驗的 研究
薛奎東(赤十字病院)
6. 網狀內皮細胞系統이 肺臟 「알러-지」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實驗的 研究
宋全武
7. 子宮癌의 病理組織學的 考察
白承龍(서울醫大)
8. 病理學教室 剖檢材料의 統計的 觀察(第三報)
朴英集(農村衛生研究所)
9. Sudan hydrosol 染色法에 의한 炎症時 白血球 內 脂肪顆粒의 態度에 關하여
邊楨燦(全南醫大)
10. 電氣泳動法에 의한 健康韓國人 血漿蛋白分層에 關한 觀察
南天祐(全南醫大)
11. 異種血清注射에 의한 胸管淋巴液細胞의 變動에 關한 研究
曹圭赫(全南醫大)
12. 人體淋巴結節의 病理組織學的 研究
張東彬(서울醫大)
13. 頸部淋巴結節內에서 唾液腺組織이 發見된 組織畸形의 一例
張東彬(서울醫大)
14. 甲狀腺癌의 晚發性 轉移의 一例
金東式, 崔嶠峻(延世醫大)
15. 胸腺알러지와 辜丸알러지와의 相關性에 關한 實驗的 研究
洪淳珏(延世醫大)

제 9 회(1957년)

1. 心冠狀動脈의 病理組織學的 研究
盧鎔冕(서울醫大)
2. 肝脾骨髓腎의 「알레기」性 反應(血管反應을 除去한 骨髓의 組織反應)
邊楨燦(서울醫大)
3. 惡性淋巴腫의 病理組織學的 研究
李寅誠(서울醫大)
4. 網狀內皮細胞系統의 辜丸의 「알레기」性 變化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實驗的 研究
金昇坤(서울醫大)
5. 皮膚癌의 病理組織學的 研究
尹信源(서울醫大)
6. 「알레르기」性 血栓과 Heparin
曹圭赫(全南醫大)
7. 韓國人의 腫瘍의 統計的 觀察
金東式, 洪淳珏, 崔嶠峻, 黃泰植, 鄭準台(延世醫大)
8. 韓國人 指紋의 研究
崔鎮, 劉永祐(科學搜查研究所, 서울醫大)

제 1 표. 계 속

<p>9. 各臟器物質의 血液凝固에 대한 生體內 實驗과 各 凝固要素의 變動에 관한 研究(補遺) 朴英集(釜山醫大)</p> <p>10. 諸種血液凝固 促進有效物質이 凝固遲延 血液에 미치는 影響 方昌德(全南醫大)</p> <p>11. Cortison의 心臟 「알레르기」 變化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實驗的研究 崔嶠峻(延世醫大)</p> <p>12. 顆粒膜細胞腫의 一例 崔日熏, 梁在福(梨花醫大)</p> <p>13. 筋肉의 pH 曲線과 死後經過時間에 대한 實驗的研究(第一報) 文國鎮(國立科學搜查研究所, 서울醫大)</p> <p>14. 白血球數에 관한 統計的研究 池貞姬, 朴英集(釜山醫大)</p> <p>15. 脂肪變性이 筋肉 「알레르기」 性 變化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實驗的研究 李權周(延世醫大)</p> <p>16. Wilms tumor(五例報告) 李聖洙, 裒奇煥(서울醫大)</p> <p>17. 韓國人 毛髮의 計測(第一報) 成人男性 頭皮毛 劉永祐, 崔鎮, 文國鎮(國立科學搜查研究所, 서울醫大)</p> <p>18. 肝지스토마증을 併發한 原發性 肝臟癌 三例 朴斗輻(釜山醫大)</p> <p>19. 脾臟의 「알레르기」 性 變화와 網狀織內皮系統 填塞과의 關係에 관한 實驗的研究 鄭漢奎(延世醫大)</p> <p>20. 韓國人의 臟器重量(統計) 盧鎔冕(서울醫大)</p>	<p>21. 實驗的 血腫內의 白血球에 관한 組織化學的 研究 崔鎮(國立科學搜查研究所, 서울醫大)</p> <p>22. Dehydrogenase activity in cancer 具國會(首都醫大)</p> <p>23. Peroxidase 反應에 관한 研究. 特히 骨髓細胞의 peroxidase 反應에 대하여 朴斗輻(釜山醫大)</p> <p>24. 好酸球에 관한 實驗的 研究(第一報) 組織及 血液內 好酸球 增多症과 副腎皮質과의 關係 金順泰(釜山醫大)</p> <p>25. Shock시의 體內好酸球의 消長(第二報) 金順泰, 朴英集(釜山醫大)</p> <p>26. 好酸球 增多症 誘起物質 池貞姬, 金順泰(釜山醫大)</p> <p>27. Cortison의 卵巢 「알레르기」 性 變化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實驗的研究 金東式, 黃泰植(延世醫大)</p> <p>28. 火傷毒에 의하여 惹起되는 形態學的變化에 관한 實驗的研究 金永彦(서울醫大)</p> <p>29. 病理學教室 剖檢材料의 統計的 觀察(第五報) 疾病統計에 대하여 朴英集(釜山醫大)</p> <p>30. 燐投與肝臟의 「알레르기」 性 變화와 이에 미치는 辜丸의 影響에 관한 實驗的研究 (第三報) 去勢家兎의 燐投與한 肝allergy 劉永祐(國立科學搜查研究所, 서울醫大)</p> <p>31. 燐投與肝臟의 「알레르기」 性 變화와 이에 미치는 辜丸의 影響에 관한 實驗的研究(第四報) 去勢家兎의 燐 및 testosterone 투여한 肝 allergy 劉永祐(國立科學搜查研究所, 서울醫大)</p>
---	--

표하였다. 한편 鄭昌洙는 서울대에서 대구의대로 옮겨서 「자가혈청주사시 식물신경독으로 인한 백혈구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였다. 대구의대의 朴斗輻은 「원발성 간암의 통계적 관찰」을 발표하였다. 한편 광주의대에서는 김영제, 박영집, 안부호, 신현구등이 「혈액응고», 「혈전형성», 「Sudan 과립」등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1949년에는 「臨床醫學」이라는 학술지가 창간되고 조선의보는 폐간되었다. 「臨床醫學」에는 이제구의 「Cholera(其二)」¹³ 이제구, 이성수의 「유행성 뇌염의 병리조직학적 변화」가 게재되었다¹⁴. 한편 이해 학술대회에서는 이화의대 병리(김정식등)에서도 「뇌염시(屍)의 부검소견」에 대하여, 세브란스의대 병리(김

동식)에서도 「금년 유행한 뇌염환자 중추신경계통의 병리조직학적 소견에 대하여」등이 발표된 것으로 미루어 이시기에 유행성 뇌염이 전국적으로 창궐하였던 해였다고 생각된다. 1940년 「臨床醫學」에는 뇌염외에도 李應洙(연세의대)의 「산염기평형이 근육 아레루기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라는 논문이 발표되었고¹⁵ 남창춘은 「癩에 있어서의 발육이상 및 기형의 통계적 관찰」을 발표하였다¹⁶. 한편 윤일선은 「국제암회의에 참석해서」라는 글을 통해 해외 의학을 소개하였다¹⁷.

한편 1949년 제 3 회 의학협회 종합학술대회에는 총 218연제 중 19연제가 병리학관계연제였는데 이때부터 기초부는 따로 발표장을 가지게 되었다(제 1

표). 이 대회에서 윤일선(서울의대)은 「조직의 과민성 변화에 관한 실험적 연구」라는 제목의 숙제보고를 하였다. 병리학 관계 연제로는 이미 기술한 뇌염에 관한 것 외에 여자의과대학 병리의 임정규가 「Myocyte에 대하여」, 광주의대의 신현구가 「Monocyte에 대하여」, 그리고 광주의대의 南天祐, 안부호등은 「혈액응고」, 「shock」, 「혈액독」등에 관한 발표를 하였고 대구의대 병리(홍석재)에서는 「Ferritin 대사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2. 6.25 한국전쟁부터 독자적 학회를 하기까지 (1950~1957년)의 학술활동

1950년은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해로 이 해에는 학술활동에 관한 아무 기록이 없다. 1949년 종합학술대회를 5월에서 10월로 옮겼기 때문에 1950년에는 10월로 예정된 학술대회가 열리지 못한 채 전쟁에 휘말렸다.

1951년도 전쟁중이어서 학술대회는 물론 학술지 발간도 없었다.

1952년 수도가 부산에 있으면서 제4회 대한의학협회 학술대회를 한 것으로 기록에는 남아 있으나 대한의학협회 학술지 기록에도 연제발표가 있었다는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총회만 열고 학술발표는 하지 않았다고 추측된다. 대한의학협회 기록에는 이해 5월 11일 부산의 이화여자대학교 가교사에서 모임이 있었고 여기에서 이들 동안 학술대회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⁵.

1953년 5월 30, 31일에는 부산 동대신동에 피난가 있던 서울의대와 사범대학의 임시교사에서 총 71연제와 특강 2연제로 대한의학협회 제 5 회 종합학술대회를 가졌었는데 연제중에는 6개의 병리학관련 연제가 포함되어 있다(제 1 표). 홍석재(대구의대)의 「Vitamin K에 의한 혈액응고촉진기능」, 박영집(전남의대)의 「부검재료의 통계」등이었다. 당시 부산과 광주는 전쟁중 일을 계속할 수 있었겠으나 그외의 경우는 아마도 전쟁전의 논문을 발표하였다고 추측된다.

1954년은 이미 휴전과 더불어 수도가 서울로 환도된 후이므로 서서히 대학별로 학술활동을 시작하는 해였다. 그동안 발간되었던 몇몇 학술잡지도 6.25전쟁으로 모두 폐간되고 아무것도 없던 중에 1954년 8월 「醫學(病理와 臨床)」이라는 학술지가 창간되었다. 이 잡지의 副題가 「병리와 임상」이라고 붙은 것은 흥미로우나 편집진에는 병리학자는 없었다⁶. 여기에서 병리에 관한 논문은 찾기 어려우며 그나마 2호로 폐간되었다. 1954년 6월 20, 21일에는 서울의대에서 제 6 회 대한의학협회 종합학술대회가 열렸는데 이때

는 총 18연제의 병리학관계 연제가 발표되었다(제 1 표). 18연제중 알레르기성 변화에 대한 실험연구가 10연제를 차지하였는데 서울의대가 6연제, 국립경찰병원 2연제, 치안국 감시과 1연제, 육군 중앙의무시험소 1연제로 이들 모두가 윤일선 교수 지도논문임을 알수 있는 바 당시 윤일선 교수를 통한 박사 학위 과정 학생수가 많았음을 나타낸다. 이해에 해군의 최일훈은 「Sequestration lung의 부검예」를 발표하였고 치안국 감시과의 유영우, 최진은 「울릉도 원주민의 지문에 관한 조사와 연안 각도민의 지문과의 비교관찰」을 발표하였는데 당시 저자들이 군이나 경찰에 소속된 것은 전쟁 중 소집되어 근무중인 기관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어쨌든 이것은 귀중한 법의학관계 연제였다.

1955년 6월 11, 12일에는 병리학회는 14연제를 가지고 제 7 회 종합학술대회에 참가하였다(제 1 표). 14연제중 연자소속을 보면 육군 4, 해군 4연제로서 군진이 과반수를 차지하여 전쟁의 영향을 실감케한다. 내용도 「변사자 부검의 통계적 고찰」(김춘택등), 「종양의 통계적 고찰」(김춘택등), 「발비탈계 화합물 급성 중독사의 1부검예」(심구복등)등이었다. 한편 전남의대의 남천우는 「shock시의 혈장단백분획」, 변정찬은 「혈액응고」에 관하여 발표를 하였다. 한편 이해 학술대회에서는 전남의대 병리의 金永濟는 「生體內血液凝固促進及遲延」의 제목으로 특별강연을 하였다.

1956년 5월 26, 27일에는 제 8 회 대한의학협회 종합학술대회가 열렸는데 병리학회는 15연제를 가지고 참가하였다(제 1 표). 이해에도 예년에 이어 각종 장기와 알레르기와의 관계를 추구한 실험논문이 많았는데 예를 들면 홍선(연세의대 황태식), 비장(부산 고려병원 심영덕), 심장(연세의대 김동식), 간장과 갑상선(연세의대 방현), 폐장(송전무), 홍선(연세의대 홍순각), 간장(적십자병원 설규동)등이었다. 지금보면 이들 발표자의 대부분은 병리학자가 아니고 학위를 위하여 윤일선 교수 지도를 받았던 임상가들임을 알수 있다. 한편 이해 학회에서 서울의대 백승룡은 「자궁암의 병리」, 장동빈(서울의대)는 「인체림프절의 병리」, 김동식과 최인준(연세병리)은 「갑상선암의 만발성 전이」등의 인체와 관련된 병리를 발표 하였다. 전남의대 병리의 변정찬, 남천우, 조규혁등은 각각 지방염색, 혈장단백분획, 이종 단백질주사후 홍관염과 액세포등에 관한 연제를 발표하였다. 이해 발간된 윤일선 교수 회갑기념논문집에는 「영아 Wilms tumor」(고극훈등)¹⁹, 「복막가성점액종」(이신재등)²⁰, 「한국인에 있어서의 종양통계」(김동식등)²¹ 와 영문논문인

「A Case of Hand-Schüller-Christian Disease」(고극혼등)이 발표되었다²². 여기서 김동식, 황태식, 홍순각, 정준태, 최인준등이 발표한 종양통계는 세브란스병원에서 1953년부터 1957년까지의 총 749예의 종양을 대상으로 한것으로 이 방면의 귀중한 자료이다²¹. 1956년에는 상업학술지인 「綜合醫學」이 창간되었다.

1957년 6월 8, 9일 대한의학협회 제9회 학술대회가 열렸는데 병리학회는 역사상 가장 많은 32연제를 가지고 참가하였다(제1표). 따라서 병리학회는 제3강연장을 따로 배정받아 제1일(6월 8일)에 일괄 발표하였다. 즉 이때부터는 학회가 거의 독자적 학술발표를 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다음해(1958) 제10회부터 독립적으로 학술대회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1957년 학회에 참가한 기관은 서울의대(13연제), 연세의대(5연제), 부산의대(8연제), 전남의대(2연제), 이화의대(1연제), 수도의대(1연제)등이었으며 이때부터 사람의 병리에 관한 연구 즉 심관상동맥(서울의대 노영면), 악성림프종(서울의대 이인성), 피부암(서울의대 윤신원), Wilms tumor(서울의대 이성수등), 간디스토마 병발 간암(부산의대 박두복), 장기종양(서울의대 노용면), 부검통계(부산의대 박영집)등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각 기관별로 실험에 관한 발표도 활발하였으며 이해도 아레르기 연관 연제가 8개 있었다. 1957년 창간된 「新醫藥」이란 학술지에 「임파선의 병리조직학적 연구」(서울의대 장동빈)가 게재되었고²³ 서울대논문집(의약편)에는 「한국인의 장기종양(통계)」(서울의대 이성수, 노용면)이 발표되었다²⁴.

1958년에 들어서면서 대한병리학회는 독자적 학술대회를 가지게 되었고 이후 발간된 여러가지 학술지를 통하여 점차 활발한 학술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에 관하여서는 이미 기술된 바 있다²⁵.

맺 음 말

1945년 8월 광복과 더불어 일제의 강력한 영향 밑에 있던 몇몇 대학과 전문학교에서 일인들이 물러간 후 한국인에 의하여 병리학이 시작되었던 1945년부터 병리학회가 독자적 학술활동을 하기 시작한 1957년까지의 기간동안 병리학과 관련된 활동을 살펴보았다.

1945년을 전후하여 약 2-3년동안 병리학의 학문활동은 거의 없었고 1947년에 들어서면서 각 기관마다 서서히 기기를 정리준비하고 학술활동을 시작할 무렵에 한국전쟁이 일어나 그나마 준비하였던 것까지 없어졌으며 이후 1955년경 까지 병리학은 명맥만 유

지한 정도였다. 그러다가 1956, 1957년에 들어서야 학교를 중심으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학술활동이 점차 활기를 띠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저자는 1945년부터 1957년까지의 기간은 사회여건상 학문의 암흑기였음은 사실이지만 한국의 병리학이 무에서 시작하여 도약의 발판을 구축하는 시기였으며 이러한 도약의 발판은 몇몇 의과대학 병리학교실을 중심으로 꾸준하고 성실하게 학문을 위해 최선을 다한 선배 병리학자들의 개척자적 정신과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고 판단되었다.

참 고 문 헌

1. 全鐘暉. 우리나라 現代醫學. 그 첫 世紀. 최신의 학사 1987; 212-324.
2. 大韓病理學會. 大韓病理學會沿革. 大韓病理學會誌 1967; 1: 1.
3. 연차학술대회 연제 및 초록(1958~1962). 大韓病理學會誌 1967; 1(1): 49-99.
4. 연차학술대회 연제 및 초록(1963~1966). 大韓病理學會誌 1967; 1(2): 1-96.
5. 大韓醫學協會. 대한의학협회 85년사 1994; p82.
6. 尹日善. 國際癌會議出席. 朝鮮醫報 1947; 1: 133.
7. 李濟九. Cholera(其一). 朝鮮醫學新報 1947, 2(3).
8. 朝鮮醫報. 1947, 1.
9. 朝鮮醫報. 1948, 1.
10. 韓鎬燮. 寒冷 또는 溫熱에 暴露한 家兔血液內的 體溫 調節物質에 關한 研究. 朝鮮醫報 1948; 2: 5-11.
11. 南昌春. 成熟兒에까지 發育된 卵管妊娠의 1剖檢例. 朝鮮醫報 1948; 2: 18-21.
12. 尹日善. 美國醫學을 보고서. 朝鮮醫報 1948; 2: 47.
13. 李濟九. Cholera(其二) 臨床醫學 1949, 1(6).
14. 李濟九, 李聖洙. 流行性 腦炎(日本腦炎)의 病理. 臨床醫學 1949; 1(1).
15. 李應洙. 酸鹽基 平衡이 筋肉아레루기-性 變化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實驗的 研究. 臨床醫學 1949; 1: 2-9.
16. 南昌春. 癩屍에 있어서의 發育異常 及 畸形의 統計的 觀察. 臨床醫學 1949; 1(6).
17. 尹日善. 國際癌會議에 參席해서. 臨床醫學 1949; 1: 44.
18. 李濟九. 成人肺結核의 發生. 特히 그 始發部位. 臨床醫學 1949; 1(7, 9).
19. 高克勳, 周春植, 崔嶠峻. 嬰兒 Wilms tumor의 1例. 尹日善教授 華甲記念論文集 1956, 625-631.

20. 李申載, 崔嶠峻, 鄭準台. 腹膜假性粘液腫의 一例. 尹日善教授 華甲記念論文集 1956, 633-639.
 21. 金東式, 黃泰植, 洪淳珏, 鄭準台, 崔嶠峻. 韓國人 에 있어서의 腫瘍의 統計的 觀察. 尹日善教授 華甲記念論文集 1956, 699-716.
 22. Koh KH, Whang WC, Chung CT. A Case of Hand-Schüller-Christian Disease. 尹日善教授 華甲記念論文集 1956; 651-57.
 23. 張東彬. 淋巴腺의 病理組織學的 研究. 新醫藥 1957; 1: 265.
 24. 李聖洙, 盧鎔冕. 韓國人의 臟器重量(統計). 서울 大論文集 1957; 6: 218-30.
 25. 지제근. 한국의 병리학. 그 도입과 정착. 醫史學 1993; 2: 159-77.
-